

PRESS RELEASE

EMO 하노버 2013 – 한국기업, 세계 공작기계시장서 위상 높인다

2012 년 12 월 1 일, 서울 – EMO 하노버가 2013 년 9 월 16 일부터 21 일까지 개최된다.

금속가공 분야 세계 최고 박람회인 EMO 하노버는 공작기계 및 관련 부품소재 기업들이 참가해 전세계 제조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시하는 자리다.

주최측인 독일공작기계협회(VDW)의 클라우스-페터 쿤뮌히 이사는 12 월 12 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전세계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어떤 나라에서든 생활 수준 향상은 현대적인 고급형 제품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공작기계다. 인프라, 이동성, 에너지, 영양, 건강 측면에서 규모가 확대되는 메가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업계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작기계 사용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쿤뮌히 이사는 “EMO 하노버 2013 은 전세계 사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세계 공작기계 시장은 지난 20 년 동안 두 배로 성장해 2011 년 현재 860 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21 세기 들어 공작기계 수요는 달러 기준으로 연평균 10%씩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은 주로 아시아가 견인한 것으로 2011 년 전세계 공작기계 생산의 3/5 이 아시아에서 이뤄졌다.

공작기계 시장 뜀다; 고객사 투자 확대

EMO 행사가 있는 2013 년에는 전세계 공작기계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960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2012 년 정체기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전세계 GDP 와 산업 생산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엔진인 중국은 두 자릿수의 높은 GDP 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후퇴한 상황이다. 이는 1 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성장 견인 요소가 자본 투자에서 내수로 균형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는 규모가 더욱 커진 중산층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제품, 서비스, 고급 가전, 친환경 자동차 등을 찾고 있다. 이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신흥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에 따라 주요 산업계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와 협력 업체, 기계, 금속가공, 전기, 정밀가공, 광학, 의료기술, 기타 수송 기기(항공, 철도, 선박) 분야가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업계는 내년 생산 역량 확대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9% 정도 늘려 잡고 있다.

한국 기업들도 내년도 설비 투자 규모를 8% 증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필요한 기술, 기계, 프로세스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EMO 하노버 2013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경험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이에 맞는 올바른 솔루션을 제시한다.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공작기계 수요처는 전기, 자동차, 금속생산, 기계 분야로 이들 업계 모두 EMO의 주요 고객이다. 2011년 EMO 하노버에 참석한 업계 전문가들은 300여명에 달했다.

한국 기업 EMO서 경쟁력 부각

한국 경제도 내년 성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성장은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가 주도할 전망이다. 한국 산업계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3년 공작기계 구입은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50억 달러에 달한 전망이다.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군은 기계, 전기, 자동차, 기타 수송 기기 분야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공작기계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 EMO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다. 2011년 행사에서는 41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들의 전체 전시면적은 5,300평방 미터에 달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EMO에 참가해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라는 위상에 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다 EMO를 이용하면 유럽의 고객사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유럽은 한국의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 전체 수출 시장에서 23%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5억 달러에 달한다. EMO 방문객의 1/3 이상은 아시아와 미주 지역 고객사다. 쿤뮌히 이사는 “EMO에서는 한국의 금속가공 제조 업체와 관련 수요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따라서 이 분야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EMO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문의

도이치메세 한국대표부·아이피알포럼(주) 전시 1팀 유재은(Tel: 02-551-7063, E-mail: avery@ipr.co.kr)

관련 보도자료 및 사진 다운로드: www.emo-hannover.de/presseservice



http://twitter.com/EMO_HANNOVER



<http://facebook.com/EMOHannover>



<http://www.youtube.com/metaltradefair>



<http://linkedin.com/company/emo-hannover>



<http://www.cnc-arena.com/de/newsroom/emohannover>